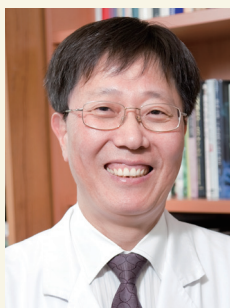


내과보다 천한 직업으로 차별받은 외과

글 이재담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중세 유럽의 대학 교수나 왕실 주치의의 대부분을 차지한 내과 의사들은 자신들이 독서와 사색을 하며 질병의 원리를 탐구하는 고상한 일에 종사한다고 믿었다. 그들이 볼 때 천

박하게도 머리 대신 손을 써서 일하는 외과 의사들은 단순한 기술자일 뿐 지성을 갖춘 교양인이 아니었다. 반면 파리의 산품과 같은 성직자 겸 외과 의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정규 과정을 수료한 소수의 엘리트 외과 의사들은 자신들도 내과 의사와 같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유럽 의학의 중심이던 파리대학에 외과를 가르치는 학부도 설립해야 한다고 청원하곤 했다.

기득권을 독점하려던 대학의 내과 의사들은 외과 의사들 중 일부를 자신들만 누리던 성직자 대우(교황청 소속 성직자들은 부역이나 세금 같은 의무가 면제됐다)를 받을 수 있는 대학의 학자 또는 학생으로 받아들여 내과 의사와 함께 해부학과 외과학을 강의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외과가 독립된 학부를 만드는 것을 교묘하게 저지했다. 이후 대학의 내과 의사들은 암암리에 이발사들에게 해부학과 외과학을 가르치면서 외과 의사들의 영역을 잠식했다.

이어서 소규모의 외과적 처치에 관해서는 자신들이 이발사를 가르칠 수 있다는 새로운 규칙을 공표했다(성직자나 귀족들의 머리나 수염을 손질해주던 하인 출신의 이발사들은 원래 외과 의사들로부터 교육받고 소규모 외

과 치료를 할 수 있는 면허를 받았다). 정규 교육을 받은 외과 의사들은 강력 반발했지만 내과 의사들의 치밀한 공세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515년 궁지에 몰린 외과 의사들이 다시 파리대학에 외과 단과대학을 만들어달라며 반격에 나서자 대세를 장악한 내과 의사들은 외과 치료에는 고등교육이 필요치 않다는 외과학을 정규 교육과목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렸다. 외과처럼 단순하고 기능적인 일은 일반 민중의 의료를 담당하는(그리고 자신들의 지시를 받는) 이발외과 의사들에게 맡기면 충분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다른 대학들도 파리대학을 본받았으므로 외과는 대학에서 가르치지 않으며, 대학을 졸업한 제대로 된 의사는 외과를 하지 않는다는 차별적 전통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결국 엘리트 외과 의사들은 일부에게나마 허가되던 성직자 대우도 못 받게 됐고, 2백년 이상 누려온 이발사들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권리도 빼앗겼다.

그 후 외과에 대한 차별은 점점 심해져서 수술의 적응증부터 구체적인 과정까지 내과가 간섭하기에 이르렀고, 조금이라도 내과적인 처방을 한 외과 의사에게는 소송을 걸어 다액의 벌금을 물렸다. 외과 의사의 대중 강의도 교황의 명령으로 금지했고, 책도 내과의 검열을 받아야 출판할 수 있었다. 1655년 프랑스 이발외과의와 외과 의사 단체가 통합되고 1686년 루이 14세의 치루 수술이 성공한 후인 18세기 초 파리대학에서 외과를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함으로써 근대적인 외과가 시작됐지만, 서양의학에서 내과와 외과의 차별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그 후로도 많은 세월이 필요했다. ㉠